

# 新古典學 形成期の 地代에 대한 論議

李 正 典\*

<目 次>

- I. 머리말
- II. 生産要素로서의 土地에 대한 初期新古典學派의 視覺
- III. 限界生産理論과 古典學派地代論의 再解釋
- IV. 地代의 성격 및 地代와 費用
- V. 生産의 完全配分理論과 所得으로서의 地代
- VI. 要約 및 맺음말

## I. 머리 말

Georgy J. Stigler가 新古典學形成期로 잡아 본 1870~1895의 기간은 經濟學에 있어서 획기적 轉換點을 이룬 기간이다.<sup>(1)</sup> 英國의 William Stanley Jevons(1835~1882), Alfred Marshall(1842~1924), Philip H. Wicksteed(1844~1927), 유럽대륙에서 Austria 學派의 三巨頭로 꼽히는 Carl Menger(1840~1921), Eugene von Böhm-Bawerk(1851~1914), 그리고 Frederic von Wieser(1851~1926), Lausanne學派의 泰斗로 꼽히는 Leon Walras(1834~1910)와 Vilfredo Pareto(1848~1923), 스웨덴의 Knut Wicksell(1851~1926), 그리고 美國에서 John B. Clark(1847~1938) 등, 이 轉換期에 살았던 이들 經濟學者들은 Smith-Ricardo-Mill로 이어지는 古典理論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론을 각기 나뉠대로 정립하였다.

이들이 정립한 新古典理論은 이후 계속 확장·발전하면서 오늘날 經濟理論에 있어서 主流를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2)</sup> 그러나 地代의 개념 및 이를 응용한 분야에 관해서만은 古典學派의 이론은 新古典學派, 특히 초기 新古典學派의 이론과는 여러 면에서 정면으로 대립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主流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古典學派의 地代論에 의하면, 土地稅는 전가되지 않으며 또한 中立的(neutral)이다. 또 실제로 古典學派는 그렇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初期新古典學派의 사고방식에서는 이러한 주장

\* 本 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副敎授.

(1) Stigler, Georgy J.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ories*, New York: The MacMillan Co, 1941, p. 1.

(2) 趙 淳, 『經濟學原論』, 서울: 法文社, 1986, p. 21.

은 용인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古典學派의 주장은 매우 오랫동안 제론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이에 대해 본격적인 異議가 제기된 것은 불과 10년 안팎의 최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3)</sup>

그렇다고 古典學派의 地代論이나 혹은 新古典學派의 地代論 중 그 어느 하나가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sup>(4)</sup> 地代에 관한 두 學派 사이의 큰 견해의 차이는 다분히 土地觀의 차이, 나아가서 문제의식이나 경제현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初期新古典學의 學風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표면상 두드러진 변화는 근대수학을 이용해서 경제현상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方法論上的 변화이다. 그래서 G.J. Stigler는 이 新古典形成期에 이르러서 經濟學이 하나의 人文學(art)으로부터 정밀과학(science)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sup>(5)</sup> 이 근대수학, 특히 解析學의 도입으로 인해 限界效用의 개념과 이와 결부된 消費者效用極大化 개념, 限界生産의 개념과 이와 결부된 利潤極大化 개념의 정립이 가능해졌고, 地代의 개념 역시 이들 기초개념에 입각해서 재정립되었다.

대체로 볼 때, 古典學派는 資本蓄積을 축으로 한 經濟成長問題 그리고 이와 결부된 사회계급 간의 所得分配問題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 반면, 新古典學派는 市場을 구성하는 家計, 企業, 生産要素供給者 등 個別經濟主體의 경제행태를 중심으로 經濟를 생각하며, 사회계급 간 所得分配問題 보다는 한정된 각종 資源의 效率의 利用問題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市場機構의 機能問題를 주요 관심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新古典理論에 있어서는 資源配分過程에 있어서의 價格의 역할이 크게 부각될 수 밖에 없고, 所得分配問題는 이 價格決定問題에 종속된다. 地代理論 역시 많은 生産要素 중 어떤 특정 生産要素의 價格決定理論으로 왜소화된다. 그래서 Stigler는 新古典形成期에는 所得分配理論은 사실상 없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sup>(6)</sup>

이러한 問題意識 및 接近方法 때문에 初期新古典學派의 地代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보아 단편적이고 산발적이며 다분히 예시적이다. 단지 Alfred Marshall은 新古典學派의 접근방법에 입각해서 古典學派의 地代論을 재편성하였기 때문에 그의 地代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3) M. Feldstein이 1977년 土地稅도 전가될 수 있음을 증명하면서 이를 “놀라운” 효과로 표현하였고, R.S. Smith(1977), A. Skouras(1978), B.L. Bentick(1979), D.E. Mills(1981) 등 일련의 학자들이 土地稅가 非中立의임을 증명했을 때 D.E. Wildasin은 이를 “놀라운” 결론으로 소개하였을 정도이다. Wildasin, David E. “More on the Neutrality of Land Taxa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35, No. 1, 1982, pp.105-108.

(4) 이하에서도 언급되겠지만, 新古典學에 있어서는 地代論이란 별개의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5) Stigler, 앞의 책 p.1.

(6) Stigler, 앞의 책 p.2.

地代論이라고 불리도 좋을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다. 本論文에서는 Alfred Marshall을 제외한 上記 初期新古典學派의 諸學者들이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제시한 地代에 대한 논의들을 역사적으로 제기되어온 地代에 관한 論爭點을 중심으로 이들의 土地觀, 地代의 概念, 地代와 費用, 所得으로서의 地代의 순서로 정리하기로 한다.<sup>(7)</sup>

## II. 生産要素로서의 土地에 대한 初期新古典學派의 視角

Böhm-Bawerk나 Marshall을 위시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初期新古典學派 學者들은 生産要素를 勞動, 資本, 그리고 土地로 나누어 보는 古典學派의 三分法, 특히 古典學派의 土地에 대한 특별취급을 별의미도 없고 또 필요도 없다는 견해를 가졌다.<sup>(8)</sup>

個別生産者の 입장 혹은 어떤 用途의 입장에서 보면, 支拂能力에 따라 土地의 利用量은 얼마든지 가변적이다. 土地를 물리적으로 이동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土地의 用途變更은 경제적으로 土地를 이동시킨 것과 다름없으며, 또한 土地의 生産性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用途別 土地의 전환이 자유로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土地에 대한 改良工事(improvement)는 土地의 有用性을 높이며, 특히 交通手段의 발달은 土地의 장소로서의 有用性을 높히는데, 이 有用性이 높혀진 만큼 土地의 공급은 사실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점들로 볼 때, 종래 古典學派가 강조한 供給限定性 및 非移動性이 다른 生産요소와 구별하여 土地를 특별 취급해야 할 土地의 특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新古典學派의 土地라는 資源에 대한 시각이다. 古典學派가 강조한, 大自然의 無償供與物이라는 土地의 특징을 初期新古典學派는 경제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sup>(9)</sup>

(7) Marshall의 地代論에 대해서는 拙稿「古典學派地代論의 展開過程과 Alfred Marshall의 地代論」『經濟論集』(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第26卷, 第1,2號(1987) 참조.

(8) Böhm-Bawerk는 古典學派처럼 供給限定性, 非移動性, 大自然의 無償供與物을 土地의 특징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土地所有階級과 資本所有階級과의 신분상의 차이, 土地를 기반으로 하는 農業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土地를 다른 자원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한 土地로부터의 所得은 다른 자원으로서의 所得에 적용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발전도상의 경제에 있어서는 地代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에 반해 資本에 대한 소득인 利子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Stigler, 앞의 책 p.193.

(9) J.B. Clark에 의하면 土地는 세가지 종류의 有用性을 갖는데, 그 첫째는 인간이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없는 본원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有用性, 둘째는 인간의 공동활동으로 인한 有用性, 셋째는 土地改良工事에 투입된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有用性이다. 이중 두번째와 세번째 有用性에 대해서는 地代란 代價가 지불되는데, 첫번째 有用性은 인간이 존재하든 하지 않은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地代에 아무런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제기하였다. Keiper, J.S., E. Kurnow, C.D. Clark and H.H. Segal, *Theory and Measurement of Rent*, Philadelphia: Chilton Company, 1961, p. 85.

보다 근본적으로, 土地를 포함한 모든 生産要素들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원활한 代替關係가 존재한다는 견해가 新古典學派의 生産理論에 있어서 기초를 이룬다. 물론 古典學派들이 生産要素들 간의 代替關係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Ricardo의 地代論은 土地가 다른 生産要素와 대체됨을 전제한다. 그러나 古典學派는 勞動과 資本이 일정한 比率로 이용된다고 본다. 이것은 단순히 분석의 편의를 위한 가정이 아니라 古典學派의 價値論에 있어서 근저를 이루는 勞動價値說의 논리적 일관성을 위한 가정이다.<sup>(10)</sup> 그렇기는 해도 이러한 불충분한 代替關係의 설정 때문에 古典學派는 收穫遞減現象을 이론적으로 명백히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경험적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밖에 없었다. 初期新古典學派 學者들, 특히 Knut Wicksell은 모든 生産요소들 사이의 원활한 代替關係에 입각하여 收穫遞減現象을 이론화하고 이러한 현상이 경험적 법칙이 아니라 數學的 필연성을 가진 법칙임을 밝힌 바 있다.<sup>(11)</sup> 그는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산업이 이용하는 어떤 두 生産要素 사이의 결합비율, 예컨대 勞動/土地 比率는 賃金/地代의 比率에 따라 결정되며, 또한 이 後者は 前者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Wicksteed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토지가 다른 生産요소로 대체될 수 있고 또한 토지가 매우 다양한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토지는 다른 生産요소들과 분석상의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이와 같이 古典學派가 土地에 부여한 그 고유성이 부정됨에 따라 新古典學派에 있어서는 종전의 三分法 대신 二分法, 특히 生産要素를 크게 勞動과 資本으로 나누어 보는 二分法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勞動階層과 資本家階層 사이의 갈등이 점차 첨예화되는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sup>(13)</sup> 이 二分法에 있어서 土地를 어떻게 취급하는가는 학자마다 차이를 볼 수가 있다.

J.B. Clark, Wicksteed 등은 土地를 資本(정확하게는 資本財)의 범주에 포함시키는데, Wicksteed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볼 때 土地와 資本의 구별은 매우 어렵고 임의적일 뿐 아니라 이러한 구분은 市場의 法則을 규명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sup>(14)</sup> 일상 생활에서 말하는 土地에는 改良工事로 구체화된 인위적 노력이 함축되어 있다. 다시 말하

(10)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Pasinetti, L.L. *Lectures on the Theory of Produc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1977) pp.79-80 참조.

(11) Stigler, 앞의 책 p.266. Wicksell, Knut, *Lectures on Political Economy*, New York: Augustus M. Kelley Publisher, 1967 (reprint), pp.124-133.

(12) Wicksteed, Philip H., *The Common Sense of Political Econom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33, p.290, pp.365-367.

(13) 趙淳, 앞의 책 p.22.

(14) Wicksteed, 앞의 책 p.366.

면 資本이 內在化되어 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주어진 土地가 어떠한 有用性を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인데, 예를 들어 인위적 노력이 전혀 가해지지 않은 자연상태의 裸地의 경우, 그 주변지역에 公共投資를 하면 이 裸地의 가치는 저절로 상승할 것이나, 그 有用성의 어느 만큼이 자연적이고 또 어느 만큼이 資本 때문인지는 매우 구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그런 구분은 필요도 없다는 것이 Wicksteed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오늘날 土地稅의 부과를 반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Clark는 資本(capital)과 資本財(capital goods)를 엄격히 구별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前者를 生産의 富의 추상적 物量(an abstract quantum of productive wealth) 혹은 영속적 基金(permanent fund)이라고 정의하고 後者를 生産을 위한 구체적 道具로 정의하였다. 쉽게 말하면 資本財란 資本이 구체화된 것이며, 資本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구체화된 재화가 곧 그가 말하는 資本財이다.<sup>(15)</sup> 資本은 영속성을 갖는 반면 資本財는 소모되면서 어느 기간동안만 존재한다. 資本財는 소모되면서 生産에 기여하는데, Clark는 土地를 소모되지 않으면서 生産에 기여하는 유일한 資本財라고 보았다.<sup>(16)</sup>

한편 Böhm-Bawerk와 Wicksell 등은 生産要素를 原初的(original) 혹은 本源的(primary) 生産要素와 副次的(secondary) 혹은 中間的(intermediate) 生産要素로 구분하고 前者의 범주에 勞動과 土地를 그리고 後者의 범주에 資本을 포함시켰다.<sup>(17)</sup> 이에 대한 Wicksell의 견해는 所得決定에 관한 한 勞動과 土地 사이에는 경제적 차이가 사실상 없고, 따라서 地代에 대한 별도의 이론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資本은 한편으로는 勞動과 土地의 生産力을 높이는 生産要素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勞動과 土地의 產物이라는 2중적 성격을 갖는다. 利子論으로 유명한 Böhm-Bawerk와 Wicksell은 이러한 資本의 특수성을 기존 利子論에 대한 비판의 기점으로 삼아 새로운 利子論을 제시함으로써 후에 현대의 利子論을 정립한 Irving Fisher에 큰 영향을 주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18)</sup>

Walras의 生産要素區分方法은 약간 피상적이긴 하지만 그는 生産要素 그 자체와 生産要

(15) Clark는 資本과 資本財의 관계를 생명과 인간의 관계로 설명하였는데, 생명은 추상적인 것이지만 끊임없이 계기적으로 인간으로 유형화되는 생명은 구체적인 것이다. Clark, John B. *The Distribution of Wealth*, New York: The MacMillan Co. 1899, p. 121, p. 190.

(16) 같은 책, p. 118.

(17) Stigler, 앞의 책 p. 198, p. 268.

(18) 전통적으로 利子は 資本의 생산성에 대한 代價라고 이해되었다. 이에 대하여 Böhm-Bawerk가 제기한 異議는 다음과 같다. 장기적으로 보면 資本에 대한 代價는 이 資本의 生産에 동원된 勞動과 土地에 대한 비용을 총당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어떤 資本의 생산성이 높아져 그 가치가 크다고 하면 이 資本의 生産에 동원된 勞動과 土地에 대한 代價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보면 일단 생산된 資本의 이용에 대해서는 利子란 명목의 代價가 지불된다. 그렇다고 하면 資本에 대해서는 代價가 2중으로 지불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 Landreth, H., *History of Economic Theory*,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6, pp. 263-264.

素가 제공하는 用役을 명확하게 구별한 최초의 학자로서 많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는 一回의 사용으로 완전 소모되지 않고 어떤 기간에 걸쳐 一回 이상의 用役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經濟財(즉, 耐久財)를 資本 혹은 固定資本(fixed capital)이라고 정의하고<sup>(19)</sup> 기업이 생산에 이용하는 것은 資本 그 자체가 아니라 資本의 用役 혹은 回轉資本(circulating capital)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런 내구성을 갖지 않는 재화 중에서 비료, 씨앗, 금속, 목재, 섬유, 연료 등 생산에 이용되는 것들을 原資材(raw materials)라고 불렀다.<sup>(20)</sup> 어떤 資源은 資本일 수도 있고 原資材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일을 위한 나무는 資本이지만, 연료를 위한 나무는 原資材이다. 따라서 生産要素는 크게 資本의 用役과 原資材의 두가지 인 셈이다.

Walras는 資本을 다시 土地資本(landed capital), 人的資本(personal capital), 그리고 固有資本(capital proper)으로 세분하였는데 土地資本이란 통상 말하는 土地이고 人的資本이란 사람 그 자체를, 固有資本이란 資本財를 의미한다. 人的資本이 제공하는 用役이 곧 勞動이다. 그러므로 Walras에 의하면 古典學派의 勞動, 資本, 土地의 三分法은 次元이 다른 것을 同一次元에 올려 놓는 틀린 분류이다. 그에 의하면 勞動은 土地資本의 用役 그리고 資本財의 用役과 같은 격으로 취급해야 한다. 결국 Walras는 여러가지 종류의 土地資本의 用役, 人的資本의 用役, 固有資本의 用役, 그리고 原資材 등을  $n$ 가지 종류의 生産的 用役(productive services)으로 묶어 생산에 있어서 기본적 요인이라는 同一次元에 귀속시키고, 이로부터 資本의 가치는 파생된 것으로 보는 포괄적 구도를 제시하였다. 이 같은 生産要素 그 자체와 生産要素로부터의 用役에 관한 Walras의 명확한 구분은 후에 B.L. Bentick의 土地投機問題에 대한 논의에서도 크게 강조된다.<sup>(21)</sup>

Walras 자신이나, 혹은 당대의 학자들, 혹은 그 이후의 新古典學派 學者들도 간간히 生産要素를 勞動, 資本, 土地로 나누어 보거나 혹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구분하였으나, 대체로 보면 이러한 구분은 설명의 편의를 위함이거나 혹은 어떤 특수 목적(예컨대 Böhm-Bawerk와 Wicksell 등과 같이 利子の 성격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위함이지 그 이상의 별 의미는 없다. 일반적으로 新古典學派分析의 틀 속에서는 최소한도 生産要素의 價格決定에 관한 한, 모든 生産要素는 동일한 次元에서 無差別하게 취급되며, 土

(19) Walras, Léon, *Elements of Pure Economics*(translated by W. Jaffé)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54, p.212.

(20) 같은 책, p. 40. 내구성을 갖지 않는 또한 부류는 消費財(consumers' goods)이다. Walras는 모든 經濟財의 총체를 社會的 富(social wealth)라고 부르코 이 社會的 富는 資本, 消費財, 그리고 原資材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21) Bentick, B.L. "Improving the Allocation of Land between Speculators and Users: Taxation and Paper Land" *Economic Record*, Vol. 48, 1972 (March), pp. 18-41.

地는 단지  $n$ 가지 生産要素 중의 하나에 불과한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 III. 限界生産理論과 古典學派地代論의 再解釋

앞에서도 지적한 바, 新古典學派의 學者들은 기본적으로 경제현상을 각 個別經濟主體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Wicksteed가 말한 대로 특히 企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生産要素와 관련된 가장 첫번째 문제는 이용하고자 하는 生産要素가 과연 어떠한 有用性을 가지며 따라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일 것이다.

初期新古典學派는 古典學派의 生産費價值說에 대한 반동으로 主觀的 價值說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Jevons는 “여러 차례 다시 생각해 보고 또 꼼꼼히 연구해 본 결과 價值는 전적으로 效用에 의해 결정된다는 좀 색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效用價值說을 매우 자신만만하게 밀어 붙였고,<sup>(22)</sup> Menger 역시 效用價值說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效用價值說은 일단 消費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Menger는 이 이론을 生産要素의 價值決定에 확대 적용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生産要素의 價值는 이 生産要素가 생산한 생산물의 欲望充足能力 혹은 이 生産要素가 생산한 생산물과 직결된 最終消費財의 欲望充足能力, 즉 效用에 달려 있다. 달리 말하면 生産要素의 價值는 이 生産要素가 생산한 생산물의 期待價值(anticipated value)에 달려 있다.<sup>(23)</sup> 따라서 生産要素의 價值는 生産物의 價值로부터 파생된 價值이다.

이런 주장은 원칙론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生産要素의 價值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生産要素 간의 代替關係가 복잡하게 개입된다. 이에 대하여 Menger는 다음과 같이 소위 損失原則(Loss Principle)을 제시하였다. 즉 企業이 해당 生産要素를 포함한 주어진 양의 生産要素들을 이용해서 달성한 生産과 이 해당 生産要素의 한 단위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生産要素들을 재배합하여 달성한 生産과의 차이가 곧 이 企業의 입장에서 본 해당 生産要素한 단위의 價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生産要素는 다른 어떤 生産要

(22) Jevons, Stanley W,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5th edition), reprint New York: Augustus M. Kelley, 1965. p.1. Jevons는 자신이 效用價值說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古典期에 있어서도 N.W. Senior, M. Longfield, W.F. Lloyd 등이 主觀的 價值說을 개진한 바 있다. 특히 Longfield는 效用과 需要의 강도(intensity of demand)를 연관시켰고 또한 이 後者를 財貨의 가격과 연결시켰으므로 需要曲線이 右下向함을 설명했으며, Lloyd는 限界效用과 全體效用(total utility)을 구별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brien, D.P. *The Classical Economists*,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pp.97-107 참조.

(23) 期待價值란 용어를 쓴 이유는 생산과 소비사이에 時差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Stigler, 앞의 책, pp.136-140.

素들과 항상 일정한 비율로만 이용될 수도 있다. 이 고정비율의 경우에는 이 生産要素의 價値는 이 生産要素를 한 단위 잃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生産上的 損失에서 해당 生産要素와 일정비율로 결부된 다른 生産要素들이 다른 용도에 이용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기여한 만큼 차감한 차액으로 결정된다. (24)

이 損失原則에서 Menger는 이미 機會費用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Wieser, Böhm-Bawerk, Walras, Wicksell, Wicksteed, Clark, 등은 이러한 機會費用의 개념에 입각하여 소위 限界生産理論을 확립하기에 이른다. 이 理論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들이 구사한 용어나 서술방법은 學者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였다.

(1) 生産要素의 價値는 限界生産價値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어떤 生産要素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르는 競争價格(bid price)은 이 生産要素의 限界生産價値이다.

(2) 주어진 양의 어떤 生産要素는 모든 用途에서의 限界生産價値가 균일화 되도록 각 用途에 배분할 때 이 주어진 生産要素로부터의 社會的 總生産이 극대화된다.

특히 Wicksteed와 Clark는 이 限界生産均等の 원칙이 土地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을 강조하였는데, (25)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初期新古典學派 學者들의 대부분이 이 限界生産均等の 法則의 적용대상이 되는 土地用途 속에 직접 效用을 발생시키는 消費的 用途, 예컨대 Walras가 열거한 宅地, 公園, 사냥터 등의 用途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6)

이러한 내용의 限界生産理論은 初期新古典學派 學者들로 하여금 古典學派地代論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재해석이나 비판의 틀을 형성한다. Jevons는 오늘날 흔히 보는 형태로 Ricardo의 地代論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최초의 학자로 꼽히고 있다. 그는 두개의 자기 다른 土地에서 어떤 동일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개의 限界生産曲線을 그려서 地代決定을 설명하였다. 이 그림의 橫軸은 勞動의 投入量을, 從軸은 生産量을,  $apc$  曲線은 土地 A에서의 勞動의 限界生産曲線을,  $bqc$  曲線은 土地 B에서의 勞動의 限界生産曲線을 나타낸다. (27)

土地 A에서의 생산량  $x_1$ , 土地 B에서의 生産量  $x_2$ 는 각각 勞動投入量  $l$ 의 함수이며, 賃金率을  $r$ 이라고 했을 때, 이 두 土地의 효율적 이용조건을 Jevons는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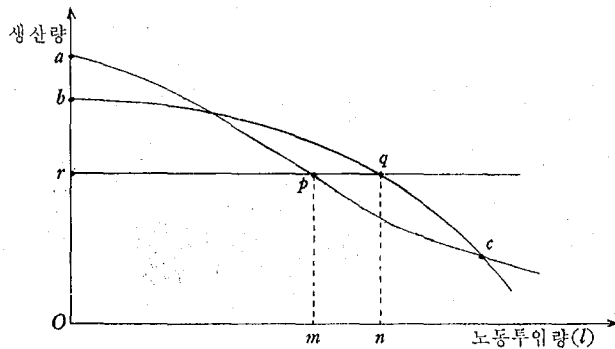
(24) 같은 책, pp. 151-154.

(25) Wicksteed, 앞의 책 p. 540.

(26) Walras, 앞의 책 pp. 214-217.

(27) Jevons, 앞의 책 pp. 210-221.





〈그림 1〉 Ricardo地代의 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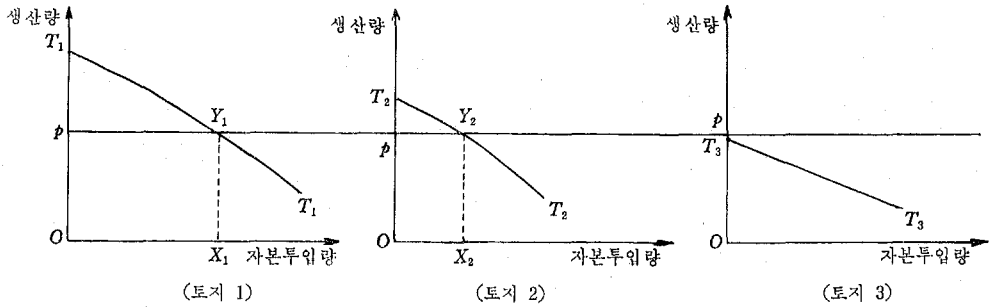
$$\frac{dx_1}{dl} = \frac{dx_2}{dl} = r$$

이에 대하여 Jevons는 마지막으로 투입된 노동(즉 限界에서의 노동)이 가장 큰 고통을 수반하므로 이 限界에서의 勞動이 생산한 만큼 賃金を 지불하여야 충분한 代價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賃金支拂總額은 土地 A에서  $l_1 \cdot dx_1/dl$ 이고 土地 B에서는  $l_2 \cdot dx_2/dl$ 이므로, 土地 A에서의 地代는  $(x_1 - l_1 \cdot dx_1/dl)$ 이고, 土地 B에서의 地代는  $(x_2 - l_2 \cdot dx_2/dl)$ 이 될 것인 바, 〈그림 1〉에서 보면  $rap$ 의 넓이가 土地 A에서의 地代, 그리고  $rbq$ 의 넓이가 土地 B에서의 地代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古典學派地代論에 대한 Jevons의 再解釋은 매우 간단하기는 하지만, 두개의 상이한 土地 그리고 이와 결부된 상이한 生産性を 상정하여 地代決定을 설명함으로써 그는 地代를 所得分配의 측면 보다는 土地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파악하려는 새로운 시각을 분명히 제시한 전환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Jevons에 비하면 Walras는 그의 유명한 一般均衡의 틀에 바탕을 두고 Ricardo의 地代論을 보다 포괄적으로 재해석하였다. Walras는 限界效用理論과 限界生産理論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을 뿐 아니라, 效用極大化를 추구하는 消費者와 利潤極大化를 추구하는 生産者로 구성된 完全競爭市場下에서는 모든 財貨 그리고 모든 生産要素 각각에 대한 需要와 供給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각 財貨와 生産要素의 價格이 존재하며, 이들 價格體系의 신호에 따른 모든 財貨의 消費者에 대한 분배의 결과, 그리고 모든 生産要素의 生産者에 대한 분배의 결과는 결국 社會的 效用的 極大化 달성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첫번째 경제학자로 꼽히는데, 그의 이 一般均衡理論은 그의 최대의 공헌이자 近代經濟學이 이룬 최대의 업적으로 기려지고 있음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Walras도 Jevons처럼 우선 그림으로 Ricardo의 地代論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림 2〉



〈그림 2〉 Ricardo地代決定에 대한 Walras의 圖解

에서 橫軸은 각 土地에 대한 資本投入量을 나타내며, 曲線  $T_1T_1$ ,  $T_2T_2$ ,  $T_3T_3$ 는 각각 다른 土地(土地 1, 土地 2, 土地 3)에서 資本投入量의 變化로 인한 純生産(net product)의 變化를 나타내는 曲線(즉 資本의 限界生産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 때의 純生産이란 總生産에서 賃金支拂額을 뺀 差額이다. (28)

資本에 대한 收益率(Walras의 표현으로는 利潤率)이  $op$ 로 주어지면 土地 1, 2에서의 地代는 각각  $PT_1Y_1$ ,  $PT_2Y_2$ 의 넓이로 주어지며, 土地 3은 경작되지 못한다. 따라서 土地 2가 경작한계의 土地가 되는데, 이같이 Walras는 경작되는 가장 열등한 土地라도 地代를 발생 시킴을 보임으로써 粗放的 限界의 土地를 無地代土地로 본 “英國學派(English School)”—Walras는 古典學派를 이같이 불렀다—의 地代論에 대한 비판을 개시하였다.

Walras는 Ricardo의 地代論을 수학적으로 정밀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學者로 꼽히는데, (29) 그는 어느 경제에  $m$ 까지 土地가 있다고 상정하고 이들 각각의 地代가 그의 一般均衡理論의 틀 속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호를 설정하였다:

$h_i$  =  $i$ 번째 土地의 坪當純生産

$x_i$  =  $i$ 번째 土地에 투입된 坪當資本投入量(實物價値로 환산한 값)

$t$  = 生産物로 환산한 利率

$r_i$  = 生産物로 나타낸  $i$ 번째 土地의 坪當地代

$n_i$  =  $i$ 번째 土地의 면적

Ricardo 地代論에 의하면 각 土地에서의 地代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eft. \begin{aligned} r_1 &= h_1 - x_1 t \\ r_2 &= h_2 - x_2 t \\ &\vdots \\ r_m &= h_m - x_m t.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 (1)$$

(28) Walras, 앞의 책 pp. 404-418.

(29) Stigler, 앞의 책 p. 255.

각 土地에서의 純生産은 資本投入量의 함수이므로 Walras는 다음과 같이 生産函數를 설정하였다 :

$$\left. \begin{array}{l} h_1 = F_1(x_1) \\ h_2 = F_2(x_2) \\ \vdots \\ h_m = F_m(x_m) \end{array} \right\} \dots\dots\dots(2)$$

어떤 時點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可用資本量은 한정되어 주어질 것인 바 이를  $x$ 라고 표시하기로 한다. 주어진 면적의 土地로부터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土地에서의 資本의 限界生産이 균일화되도록 資本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Walras에 의하면, 각 生産者는 資本의 限界生産이 利率  $t$ 와 같아지는 한계까지 투자할 것이므로, 土地  $i$ 에서의 資本의 限界生産을  $dF_i(x_i)/dx_i$ 라고 표시하면 土地의 효율적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left. \begin{array}{l} t = dF_1(x_1)/dx_1 \\ t = dF_2(x_2)/dx_2 \\ \vdots \\ t = dF_m(x_m)/dx_m \end{array} \right\} \dots\dots\dots(3)$$

끝으로, 總可用資本量에 대한 制約은 다음과 같다 :

$$n_1x_1 + n_2x_2 + \dots + n_mx_m = x \dots\dots\dots(4)$$

이상의 方程式體系는 變數의 수  $(3m+1)$ 와 동일한 수의 방정식으로 구성되므로, 각 變數에 대한 解를 구할 수 있는데, Walras는 다음과 같이 이를 구하였다. 우선 (3)式의 각 방정식을 풀어서 다음과 같이 각 土地에서의 적정투자수준을 利率  $t$ 의 함수로 나타낸다 :

$$x_1 = \phi_1(t), \quad x_2 = \phi_2(t), \quad \dots \quad x_m = \phi_m(t) \dots\dots\dots(5)$$

이 결과를 式 (4)에 대입하고  $t$ 에 대하여 풀면 이 값은 곧 경제전체로서의 資本의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는 均衡利率이 된다. 이 均衡利率을 式(5)에 대입하여 얻은  $x_1 \dots x_m$ 의 값은 곧 각 개별 土地에 있어서의 適正投資水準이 된다. 이 適正投資水準의 값들을 式 (2)에 대입하여  $h_1 \dots h_m$ 의 값을 구하고 이를 다시 式(1)에 대입하여 구한  $r_1 \dots r_m$ 의 값이 곧 각 土地에 있어서의 適正地代水準이 된다.

이와 같이 Ricardo의 地代論을 수학적으로 풀어 놓고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地代決定過程에서 賃金이나 生産물의 價格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古典學派의 이론적 틀 속에서는 賃金基金說에 따라 賃金水準은 外生的으로 주어지며, 生産費價値說에 따라 生

産物の 價格은 集約的 및 粗放의 限界에서의 生産費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賃金이나 生産물의 價格이 變數로 개입될 여지가 없다.

현실적으로 관측되는 賃金은 기본생계비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만 보더라도 賃金基金說은 인정될 수 없음을 Menger가 단정적으로 지적하였지만, (30) 新古典學派理論의 틀 속에서 賃金은 勞動의 限界生産價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賃金과 生産物價格 사이에는 상호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地代도 利子率뿐 아니라 賃金 및 生産物價格의 영향을 받는다. 요컨대, Ricardo 地代論에 대한 Walras의 비판은 地代, 賃金, 生産物價格, 利子率 등이 모든 것이 상호작용 아래 동시적으로 결정되지, 古典學派에서처럼 可用資本量→利子率→地代로 이어지면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地代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地代 뿐 아니라 모든 價格이 一般均衡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의 一般均衡의 틀에 맞추어  $n$ 가지 生産要素를 이용하여 어떤 특정 生産物, 예컨대  $B$ 라는 生産물을 生産하는 土地에 대하여 이 生産물의 價格을  $P_b$ , 이 生産물 한 단위 生産에 필요한 土地의 量(면적)을  $b_i$ , 금전으로 표시된 이 토지의 地代를  $P_i$ , 生産물  $B$  한 단위 生産이 필요한 生産要素  $i$ 의 量과 이 生産要素의 價格을 각각  $b_i$ 와  $P_i$ 로 표시하고, 위에서 제시한 地代決定方程式 (1)을 일반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P_b = b_1P_1 + b_2P_2 + \dots + b_iP_i + \dots \dots \dots (6)$$

결국 式(6)은 Walras가 古典學派地代論을 재해석하기에 앞서 그의 一般均衡理論을 전개하면서 유도한 生産費方程式, 즉 生産費는 價格과 일치해야 한다는 一般式으로 환원됨을 보임으로써 Ricardo의 地代決定理論은 資本 이외의 生産要素의 價格이 외생적으로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라고 Walras는 주장하였다. (31)

#### IV. 地代의 性格 및 地代와 費用

Walras가 유도한 式(6)은 분명히 地代가 生産費의 일부를 구성하며 따라서 生産물의 價格에 영향을 줄을 시사한다. Walras 뿐 아니라 初期新古典學派 學者들의 대부분은 地代가 잉여이며 地代는 價格에 영향을 주는 費用이 될 수 없다는 古典學派의 주장을 부인한다. (32)

(30) Stigler, 앞의 책 p. 155.

(31) Stigler는 式(6)의 係數  $b_i$ 와  $b_i$ 가 상수라는 점에서 이 式은 Ricardo의 地代決定方程式(1)을 일반화한 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Stigler, 앞의 책 p. 260.

(32) Keiper, et al. 앞의 책 p. 84.

물론 J.S. Mill도 農業用土地가 工業用土地로 전용될 때는 農業用土地의 地代는 工業用土地의 生産費에 포함되어 그 生産物의 價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한 바 있는데, (33) Jevons는 Mill의 이 예외적인 경우가 사실은 일반적 원칙임을 그의 『政治經濟原理』 第二改正版의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農業에서 地代를 발생시키는 土地가 다른 用途에 이용될 때는 農業用으로서 발생된 地代는 다른 상품생산비의 구성인자가 됨을 Mill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農業과 他産業과를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원칙이 農業用 내부에서 두가지 다른 用途 사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장으로 이용되었을 때 애어커當 2파운드의 地代를 발생시키는 土地가 밀생산을 위해 경작될 경우 이 2파운드의 地代는 당연히 밀생산에 있어서의 비용항목에 계상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설탕생산을 위한 사탕무우재배법을 英國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 사탕무우 재배토지는 여타 생산경비 뿐 아니라 다른 작물재배에 이용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地代까지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이 있어야 이 사탕무우 재배는 수지 맞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4)

요컨대, Jevons의 주장은 地代도 機會費用이기 때문에 生産物의 價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인데, Wicksteed 역시, 비옥한 土地의 경작자는 척박한 土地의 경작자에 비해 비싼 地代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상태에서는 비옥한 土地의 생산비나 척박한 土地의 생산비는 같아야 하며, 따라서 地代는 비용이 됨을 주장하였다. (35)

그러나 이런 식의 Jevons나 Wicksteed의 주장만으로는 古典學派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나, 地代는 곧 비용임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Stigler의 지적이다. (36) 물론 古典學派의 주장에 대한 初期新古典學派의 반박이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단순한 서술에 그치지 않고, 매우 다각적으로, 그리고 新古典學派의 學風답게 매우 분석적으로 모색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은 土地의 地代가 古典學派가 주장하는 剩餘가 아니라, 바로 다름아닌 土地의 限界生産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Wicksteed의 기여는 선구적인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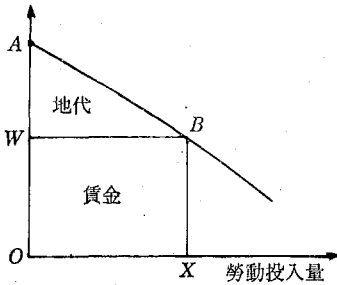
Wicksteed에 의하면 古典學派는 土地의 이용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固定觀念을 가졌기 때문에 <그림 3>에서 보듯이 總生産(OABX의 넓이)에서 사각형 부분으로 나타낸 임금총액을 뺀 나머지를 잉여로서의 地代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일정면적, 예컨대 Y만큼의 土地에 노동투입량을 한 단위씩 증가시켜 총 X만큼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을 뒤집어서 보면 <그림 4>에서처럼 총 X만큼으로 고정된 노동력에 土地投入量을

(33) 앞에서 인용한 拙稿 pp. 56-5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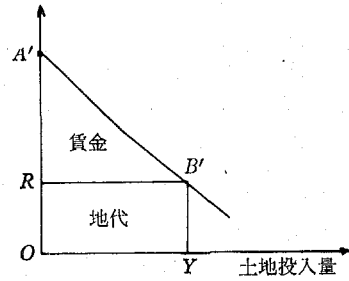
(34) Jevons, 앞의 책 pp. xlviii-xlix.

(35) Wicksteed, 앞의 책 p. 540.

(36) Stigler, 앞의 책 p. 53.



〈그림 3〉 土地投入量이 고정되었을 때 의地代



〈그림 4〉 勞動投入量이 고정되었을 때의 地代

한 단위씩 증가시켜 총 Y만큼의 土地를 투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37)</sup>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사각형 부분이 土地의 地代가 되고 삼각형 부분이 임금으로 남게 된다. 〈그림 3〉에서는 임금총액은 勞動의 限界生産에 勞動投入量을 곱한 만큼인 것처럼 〈그림 4〉에서 보면 地代總額은 土地의 限界生産에 土地投入量을 곱한 만큼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그림 3〉에서나 〈그림 4〉에서의 勞動과 土地의 투입량은 똑 같으므로 이 두그림에서의 총생산은 같을 것이다. 즉  $OABX$ 의 넓이와  $OA'B'Y$ 의 넓이는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 3〉에서 剩餘로서 결정된 地代總額은 〈그림 4〉에서 土地의 限界生産으로 결정된 地代總額과 같을 것이다. 다시 말해 地代는 土地의 限界生産이다.<sup>(38)</sup>

한편 J.B. Clark도 地代가 土地의 限界生産임을 Wicksteed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러나 훨씬 간명하게 증명하였다.<sup>(39)</sup> 만일 〈그림 3〉에서 잉여로 결정된 地代가 〈그림 4〉에서 限界生産으로서의 地代 보다 크다면 (즉  $AWB > ORB'Y$ 이면) 이 때는 진정한 의미의 剩餘가 발생하는 셈인데, 그러나 이러한 剩餘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超過利潤이다. Clark는 超過利潤과 剩餘所得(residual income)을 同意語로 보았다. 完全競爭下에서는 超過利潤은 없어지고 모든 生産要素는 각각의 限界生産價值만을 지불받게 된다. 따라서  $AWB = ORB'Y$ 가 성립한다.<sup>(40)</sup>

이와 같이 일단 地代가 土地의 限界生産임이 확정되면, 어떤 時點에서 경제 전체적으로 生産要素의 양은 주어진다고 보는 新古典學派의 前提下에서는 어떤 生産要素, 예컨대 土地의 어떤 특정용도에의 이용은 필연적으로 다른 용도에서의 이 土地의 限界生産만큼 機會費用을

(37) 이에 관련된 현대적인 설명은 Tangri, O.M. "Omissions in the Treatment of the Law of Variable Propor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LVI, No. 3(1966), pp. 484-493 참조.

(38) Wicksteed, 앞의 책 pp. 550-574.

(39) 사실은 〈그림 3〉과 〈그림 4〉는 Clark의 증명에서 따온 것이다. 다만 Clark는 土地를 資本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土地 대신 資本 그리고 地代 대신 利子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利子は 資本의 限界生産임을 보였다. Wicksteed의 증명은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장황하고 지나치게 복잡하다.

(40) Clark, 앞의 책 pp. 188-204.

수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Clark가 강조한 대로 完全競爭은 企業家로 하여금 土地에 대하여 限界生産價値 만큼만 지불하게 하고 또한 土地所有者로 하여금 限界生産價値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므로 모든 地代는 企業家가 실지로 지불하는 비용이 될 수 밖에 없다. (41) 만일 어떤 產業에서 이용되고 있는 土地를 한 단위 줄이면 생산량은 그 限界生産 만큼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이므로 需給關係上 生産물의 가격도 이에 상응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土地地代가 가격결정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土地가 생산한 生産물의 일부가 가격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셈인데, 이는 명백히 상식에 어긋난 주장이라는 것이 Clark의 지적이다. (42)

만일 地代가 土地의 限界生産을 반영한다면, 마치 勞動의 限界生産을 반영하는 賃金이 비용이 되듯이 당연히 地代도 비용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J.B. Clark는 이와 비슷한 논리로 地代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 됨을 강변하기도 하였다. 즉, 전통적으로 利子는 비용으로 간주되었고, 또 古典學派도 실제로 그렇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Clark에 의하면 地代와 利子는 동일한 실체를 다른 각도에서 파악하고 계산한 것에 불과한,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하나는 生産비로 계산하고 다른 하나는 生産비로 보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43)

Clark의 주장은, 資本에 대한 대가가 利子이고 資本財에 대한 대가는 地代라는 것이다. 단지 利子는 투입된 資本에 대한 비율로 표시되고 地代는 절대액으로 표시된다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 地代와 利子 사이의 구체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한 Clark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우선 資本은 資本財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각 資本財와 결부된 소득, 즉 地代의 수준은 利子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어떤 특정 資本財의 地代水準은 이 資本財의 총량에 달려 있는데, 이 총량은 이 資本財의 공급에 얼마나 많은 資本이 투입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 資本投入額은 해당 資本財의 純收益, 즉 해당 資本財의 地代에서 減價償却分을 차감한 純地代(net rent)를 資本投入額으로 나눈 값이 전반적 利子率과 일치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資本財의 純收益率이 균등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각 資本財의 地代는 利子率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Clark는 “地代는 대략적으로 利子を 결정하지만, 利子は 근본적으로 地代를 결정한다”라고 말하였다. (44)

(41) Clark, 앞의 책 pp. 364-370. Stigler, 앞의 책 p. 302.

(42) Clark, 앞의 책 p. 358. Stigler, 앞의 책 p. 318.

(43) Clark, 앞의 책 pp. 354-355.

(44) 같은 책, p. 125. 原文은 다음과 같다. Proximately, rent fixes interest.... Fundamentally, interest governs rents. Clark는 마치 임금을 지불하는 행위가 勞動의 産物을 사는 것임과 같이 資本에 利子を 지불하는 것은 資本의 生産물을 사는 것이므로, 生産물을 생산하는 資本의 능력

古典學派의 地代論이 土地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단 土地의 특수성을 부정하면 古典學派地代論은 와해될 수 밖에 없음은 뻔하고, 사실 初期新古典學派 理論의 틀 속에서는 地代가 價格을 결정하는(price-determining) 비용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논란도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土地의 특수성을 부인한 初期新古典學派의 學者들, 특히 Wicksteed와 Clark는 古典學派地代論이 論理的 虛構라는 극단적 견해로 치달았다. 예컨대 Wicksteed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총생산에서 土地 이외의 모든 生産要素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가 地代라고 하면, 논리상 총생산에서 경영자 이외의 모든 生産要素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經營地代(entrepreneurial rent)라고 보지 못할 이유가 없고 또 마찬가지로 勞動 이외의 모든 生産要素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勞動地代라고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논리를 수학적으로 풀어 보면  $x=a+b+c$ 라는 방정식에서  $a$ 의 값은  $x-(b+c)$ 이며,  $b$ 의 값은  $x-(a+c)$ 이고,  $c$ 의 값은  $x-(a+b)$ 라고 답하는 것과 진배 없다.<sup>(45)</sup> 그러므로 古典學派地代論의 논리에 따르면 모든 生産要素에 대한 所得이 地代인 셈인데, 그러나 모든 生産要素의 所得을 다른 모든 生産要素의 所得을 공제한 剩餘로 결정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Clark는 주장하였다.<sup>(46)</sup>

하기는 古典學派와 달리 新古典學派에서는 地代라는 용어가 반드시 土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Jevons는 투자되지 않은 資本에 대한 대가를 利子로 설명하였고, 土地를 비롯한 투자된 資本에 대한 대가는 地代로 설명하였다.<sup>(47)</sup> Wieser는 어떤 특정 용도에만 이용되는 生産要素의 경우에는 이 生産要素에 대한 용도간의 경쟁이 없으므로 이 때에 결정되는 이 生産要素의 所得은 진정한 의미의 地代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sup>(48)</sup> 한편, Wicksteed는 地代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서(주택, 土地) 소유주에게 원상태로 돌려주어야 하는 물건의 경우 ‘地代’라는 말을 쓴다”라고 말한 점으로 보아,<sup>(49)</sup> 그는 地代를 단순히 土地에 국한시키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Clark가 의미하는 地代 역시 土地地代만을 의미하지 않았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이다.

이 利子の 근본원인이라고 보았다.

(45) Wicksteed, 앞의 책 p.568.

(46) Clark, 앞의 책 pp.188-204.

(47) Jevons, 앞의 책 pp.259-265, p.302. Stigler, 앞의 책 p.23.

(48) Stigler, 앞의 책 p.162.

(49) Wicksteed 앞의 책 p.312.



## V. 生産의 完全配分理論과 所得으로서의 地代

新古典學의 限界生産理論에 의하면 完全競爭下에서는 土地를 비롯한 각 生産要素는 限界 生産價値만을 지불받으며, 따라서 生産要素의 限界生産價値가 곧 이 生産要素의 가격이며 또한 所得이다. 그러므로 新古典學의 틀 속에서는 所得分配의 문제는 市場에서의 價格決定 問題에 불과하게 된다. Wicksteed의 다음 말을 新古典學派의 所得分配問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잘 표명하고 있다.

賃金, 地代, 利子, 利潤 등은 단순히 어떤 특정 市場의 문제로 분해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구두가격에 대한 별도의 이론이나 혹은 자동차 요금에 대한 별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地代에 대한 별개 이론이나 혹은 임금에 대한 별개 이론의 여지는 없다. 이론이란 어떤 구체적 현상이나 집단에 고유한 별도의 요인이나 영향이 아닌, 일반화된 사실에 대한 일반화된 진리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하면, 地代나 利子 혹은 賃金에 대한 이론이란 있을 수 없고 所得分配에 관한 하나의 이론, 그것도 市場의 理論이 있을 뿐이다.<sup>(50)</sup>

그러나 이와 같이 어떤 재화의 생산에 참여한 모든 生産要素 각각에 대해 限界生産價値만큼씩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면 이 때의 총지출이 과연 총수입과 일치될 수 있을 것인가, 즉 해당 企業이나 産業이 收支를 맞출 수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당연히 제기된다. 만일 그 총지출이 생산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企業이나 産業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限界生産에 근거한 대가지불은 현실성을 잃게 될 것이며, 이 반대이면 모든 生産要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剩餘가 남는다는 셈인데, 그렇다면 이 剩餘를 어떻게 설명하며 또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 소위 生産의 完全配分(product exhaustion) 問題는 殘餘方法(residual approach)에 바탕을 두는 古典學派의 이론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생산에 참여한 勞動과 資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剩餘는 자동적으로 土地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총지출액은 자동적으로 총생산액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生産要素, 예컨대 土地와 勞動만이 생산에 동원되는 단순한 경우에 있어서는 生産의 完全配分이 이루어질, 즉 勞動의 投入量에 그 限界生産을 곱한 값과 土地의 投入量에 그 限界生産을 곱한 값의 합이 總生産과 일치함을 Wicksteed와 Clark가 증명하였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이다.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의 生産要素가 개입되는 일반적인 경우에

(50) Wicksteed, 앞의 책 p. 6.

도 生産의 完全配分이 이루어짐을 Wicksteed는 Walras가 표절의 시비를 건 그의 單行本 *Coordination of Laws of Distribution*에서 生産函數가 一次同次임을 목시적으로 전제하고 증명한 바 있다.<sup>(51)</sup> 그러나 Wicksteed의 증명은 매우 장황하고 서툴렀기 때문에,<sup>(52)</sup> 오히려 오늘날 많이 알려진 生産의 完全配分에 대한 수학적 증명은 경제학자로는 최초로 Euler의 定理를 이용했다고 전해지는 A.W. Flux(1867~1938)가 上記 Wicksteed의 單行本을 논평하면서 제시한 것이다.<sup>(53)</sup> 즉, 生産량을  $y$ ,  $i$ 번째 生産要素의 投入量を  $x_i$ , 그리고 이 生産要素의 限界生産을  $MP_i$ 라고 표시하고 生産函數  $Y=F(x_1, x_2, \dots, x_n)$ 가 一次同次函數라고 하면 Euler의 定理에 따라 다음 관계식이 성립함을 Flux가 증명하였다:

$$Y=MP_1 \cdot x_1 + MP_2 \cdot x_2 + \dots + MP_n \cdot x_n \dots \dots \dots (7)$$

Wicksell은 이 所得配分の 限界生産理論(marginal productivity theory of distribution)을 보다 일반화시킨 학자로 기억되고 있다. 그는 生産량을 勞動投入量(L)과 土地投入量(T) 뿐만 아니라 生産期間(t)의 함수로 보아 生産函數  $Y=F(L, T, t)$ 를 상징하고 生産의 完全配分問題를 다음과 같이 풀었다.<sup>(54)</sup>

$$Y=L \cdot MP_L' + T \cdot MP_T' + t \cdot \frac{\partial F}{\partial t}$$

여기에서  $MP_L'$ 과  $MP_T'$ 는 각각 勞動과 土地의 限界生産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인데, Wicksell은  $\partial F/\partial t$ 를 生産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生産의 増分, 즉 投資의 限界生産이라고 보고 畧식의 마지막 項을 資本에 귀속되는 몫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生産의 完全配分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生産函數가 一次同次이거나 혹은 모든 기업이 長期平均費用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生産하면서 超過利潤이 존재하지 않는 均衡狀態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企業이 規模에 따른 收穫遞増段階(規模의 經濟段階), 規模에 따른 收穫不變의 段階, 그리고 規模에 따른 收穫遞減의 段階(規模의 不經濟段階)를 모두 차례로 거치는 生産函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최초의 경제학자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장

(51) Wicksteed, 앞의 책 pp.573-862. Walras는 Wicksteed가 증명한 生産의 完全配分에 대한 方程式이 자신이 Ricardo의 地代論을 재해석하면서 유도한 上記式(6)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Stigler는 Walras의 이 주장이 지나친 경각부회라고 평하였다. Stigler, 앞의 책 p.369 참조.  
 (52) Wicksteed는 수학에 조예가 깊지 못했던 탓으로 몇차례 수정을 거친 그의 증명에서도 Stigler는 몇군데의 사소한 誤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Stigler, 앞의 책 p.323 참조.  
 (53) Flux, Arthur W. "A Review of the Coordination of the Laws of Distribution" *Economic Journal*, Vol. IV, 1894, pp.312-316. Stigler, 앞의 책 pp.328-329.  
 (54) Wicksell은 Bohm-Bawerk와 같이 資本의 역할을 迂廻生産을 가능케함으로써 生産성을 높이며 迂廻生産은 生産期間의 연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 Wicksell, 앞의 책 pp.172-184. Stigler, 앞의 책 pp.289-295.

기에 걸친 完全競爭狀態下에서는 각 企業은 規模에 따른 收穫不變의 段階에서 생산하게 됨으로 결국 産業 전체에 걸쳐 生産의 完全配分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55)

E. Barone은 Wicksell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비록 각 개별 企業의 生産函數가 一次同次가 아니더라도 完全競爭狀態 그리고 모든 生産要素가 可變인 狀態下에서는 生産의 완전배분이 이루어짐을 다음과 같이 Wicksell보다 분명히 증명하였다. (56) 土地를 포함하여  $n$ 가지 生産要素를 이용하여 가격이  $P_i$ 로 주어진 재화를 생산하는 어느 企業의 경우  $i$ 번째 生産要素의 限界生産과 그 價格을 각각  $MP_i$ 와  $P_i$ 라고 표시하면 이 企業은 費用最小化를 위해 각 生産要素의 限界生産價値가 이 生産要素의 價格과 일치하도록 각 生産要素의 適正投入量을 결정할 것이다. 즉,  $P_1 = P_1 \cdot MP_1, P_2 = P_2 \cdot MP_2, \dots, P_n = P_n \cdot MP_n$ . 장기에 걸쳐 이 企業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收支均衡을 맞출 수가 있어야 하므로, 生産量을  $y$ , 그리고  $i$ 번째 生産要素의 고용량을  $x_i$ 라고 표기하면 이 收支均衡條件은 다음과 같다.

$$P_y \cdot y = P_1 \cdot x_1 + P_2 \cdot x_2 + \dots + P_n \cdot x_n$$

이 收支均衡式에 上記 費用最小化條件式을 대입하고 정리하면 앞에서 설명한 Flux의 式 (7)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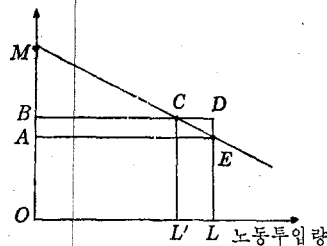
한편 Sidney J. Chapman은 生産의 完全配分理論을 그림으로 간명하면서도 정교하게 증명한 바 있다. (57)

(55) Landreth, 앞의 책 p. 250.

(56) Stigler, 앞의 책 pp. 359-361.

(57) 그의 증명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어느 産業에  $n$ 개의 동일한 企業體가 있으며 이중 어느 대표 기업의 勞動의 限界生産曲線이 <그림 5>와 같다고 가정한다. 이 企業은 1정보의 土地에  $OL$ 만

<그림 5>



량의 勞動을 투입하여  $OMEL$ 의 넓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産業 전체로는  $n \times OL$ 만큼의 勞動을 이용하여  $n \times OMEL$ 만큼의 재화를 생산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産業에 기존의 企業과 동일한 새 企業이 단지 1정보만의 土地를 가지고 이 産業에 진입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 새로운 상태에서  $(n+1)$ 개의 동일한 企業으로 구성된 이 産業은  $(n+1)$  정보의 土地에 종전과 동일한  $n \times OL$ 만큼의 勞動을 투입하여 동일한 재품을 생산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産業企業體가 이용할 수 있는 勞動의 양은  $n \times OL$ 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각 개별 企業의 勞動利用量은 종전의  $OL$ 에서 새로운 상태에서는  $OL'$ 로 감소할 것인데, 이 감소분을  $LL'$ 로 표시하면  $LL' = OL - n \times OL / (n+1) = OL / (n+1)$ 이므로  $LL' = OL' / n$ . 産業 전체로 보면 年

生産의 完全配分問題가 이같이 풀림으로서 初期新古典學의 限界生産理論은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限界生産은 정의상 다른 生産要素의 투입량을 일정하게 묶어 두고 해당 生産要素의 투입량을 한 단위 증가시킴으로 인한 생산량의 변화이므로 限界生産은 생산상의 寄與分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확대해석하면 社會에 대한 寄與分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初期新古典理論에서는 모든 生産要素의 所得이 限界生産에 의해 결정되므로, 完全競爭市場에서 결정되는 모든 종류의 所得은 生産에의 寄與分을 나타내며, 따라서 應分の 代價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生産의 完全配分理論에 의하면 각 生産要素에 應分の 代價를 지불하고 나면 剩餘란 존재하지 않는다. 剩餘가 없으므로 착취란 있을 수 없다. 모든 生産要素를 無差別하게 취급하고 또 착취대상으로서의 剩餘를 인정하지 않는 新古典學派의 限界生産理論은 한편으로는 다분히 價値中立의 性向을 가질 수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市場體制下에서 결정되는 모든 종류의 所得에 社會的 正當性을 부여하는 이론적 근거로 원용될 수도 있다. 後者의 경우와 관련하여, 初期新古典學의 限界生産理論은 古典學派의 所得分配理論을 승계한 Karl Marx와 Henry Georgy의 勞動榨取說에 대한 반동으로 개발되었다는 주장도 있다.<sup>(58)</sup> 하기는 Wicksteed는 Marx의 勞動價値說에 대한 長文의 批判論文을 발표한 바 있고,<sup>(59)</sup> Böhm-Bawerk의 Marx理論에 대한 批判은 정평이 나있다.<sup>(60)</sup>

위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최소한도 J.B. Clark의 경우에는 그 주장이 상당한 근거를 가진다.<sup>(61)</sup> 그는 독자적으로 限界效用 및 限界生産理論을 개발함으로써 初期新古典學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所得分配의 限

한 것은 土地가 한 단위 더 추가된 것 뿐이므로, 종전 상태에서의 産業總生産과 새로운 상태에서의 産業總生産의 차이는 土地의 限界生産에 해당한다. 새로운 상태에서의 産業總生産은  $(n+1)OMCL'$ 이므로 이 차이를  $X$ 라고 표시하면,

$$\begin{aligned} X &= (n+1)OMCL' - n \times OMEL = n \times OMCL' + OMCL' - n \times OMCL' - n \times L'CEL \\ &= OMCL' - n(L'CDL - CDE) = OMCL' - n(OB \times LL') + nCDE \\ &= OBCL' + BMC - OBCL' + n \times CDE = BMC + n \times CDE \end{aligned}$$

만일 이 産業이 무수히 많은 企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새로운 企業이 들어옴으로 인한 각 기존 企業의 勞動利用量의 감소분(LL')은 매우 적어질 것이므로 <그림 5>에서 CDE는 무시할 정도로 적을 것이며 따라서 BMC의 넓이는 AME의 넓이와 거의 같아질 것이다. 즉 X는 AME의 넓이와 거의 같다. 그러므로 <그림 5>에서 AME는 土地의 限界生産이 되며 土地 1정보당 이 限界生産을 지불하고 勞動 각 단위당 그 限界生産을 지불하면 總生産은 완전 배분됨을 알 수 있다. Ferguson, C.E. *Microeconomic Theory*, Homewood: Richard D. Irwin, 1972, pp. 412-414.

(58) Landreth, 앞의 책 p. 252.

(59) Wicksteed, 앞의 책 pp. 705-733.

(60) Steedman, I. *Marx after Sraffa*, London: NLB, 1977, p.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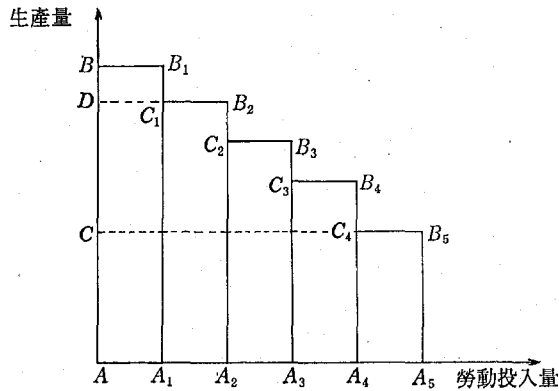
(61) Clark는 그의 저서 *The Distribution of Wealth*의 序文(p. viii)에서 Henry Georgy의 임금결정 이론이 자신의 限界生産理論을 개발하게 된 동기를 제공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界生産理論에 倫理的 意味를 부여하여 이를 資本主義體制下에서 결정되는 소득분배현상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로 삼았으며, 이 결과를 열심히 설득하고 다짐으로써 명성을 떨쳤다. 그에 의하면 土地에 대한 대가인 地代는 古典學派가 생각하듯 不勞所得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土地의 生産性에 대한 정당하고 솔직한 대가이다. 賃金이 그렇고 利子가 그렇다. 地代와 利子를 勞動이 생산한 剩餘價値의 착취라고 생각한 Marx와 H. Georgy의 견해를 Clark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그림 3〉으로 돌아가서, 총생산  $OABX$ 의 넓이에서 사각형부분( $OWBX$ )은 土地의 도움을 받지 않고 勞動이 생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BX$ 의 길이로 결정된 勞動의 限界生産은 해당 勞動力이 다른 용도에 고용되었을 때 벌수 있었던 所得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각형부분( $WAB$ )은 당연히 土地의 기여분 즉 地代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剩餘로 간주하고 이를 土地所得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勞動剩餘價値의 착취라고 주장한다면, 동일한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에 불과한 〈그림 4〉를 보자. 이 그림에서 삼각형부분( $RA'B'$ )은 土地와 勞動이 합동으로 생산한 부분 즉 총생산( $OA'B'Y$ )에서 土地만으로 인한 생산부분( $ORB'Y$ )를 뺀 나머지로써, 이를 勞動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Marx나 Georgy처럼 剩餘部分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Marx와 Georgy의 논리에 따르면, 이 剩餘部分을 賃金으로 지불하는 것은 土地生産物의 일부를 賃金으로 착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62)</sup> 그러므로 Marx와 Georgy의 勞動搾取說은 모순을 내포한다는 것이 Clark의 주장이다.

이와 같이 Clark는 특히 사회적 지탄을 받는 地代와 利子の 사회적 정당성을 강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림 6〉은 〈그림 3〉과 동일한 상황을 그린 것으로서, 예컨대 土地의 投入量을 1,000坪으로 일정하게 묶어두고 勞動의 投入量을 橫軸의 小區間과 같이 한 단위 씩 증가시켜 갔을 때의 限界生産을 막대기등으로 나타내었다. Clark에 의하면 두번째 단위의 勞動이 투입됨으로 인한 생산의 増分(즉  $A_1C_1B_2A_2$ )이 첫번째 단위의 勞動이 생산한 것보다 적어진 이유는 勞動單位當 土地利用量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 두번째 단위의 勞動이 투입될 때 첫번째 단위가 이용했던 만큼의 土地 즉 1,000坪 만큼 土地投入量도 동시에 늘려 주었다라면 생산은  $ABB_1A_1$ 의 두배가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勞動과 土地의 투입량을 동시에 증가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두번째 단위의 勞動의 限界生産이 첫번째 단위의 그것에 비해  $DBB_1C_1$  만큼 줄어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DBB_1C_1$  만큼이 土地의 限界生産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세번째 단위의 勞

(62) Clark, 앞의 책 pp. 188-205.



〈그림 6〉 土地限界生産의 計算

動的 限界生産과 두번째 단위의 勞働의 限界生産과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순전히 土地의 생산성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총 5단위의 勞働을 투입했다고 했을 때의 총생산에서 賃金總額  $ACB_5A_5$ 의 넓이를 뺀 나머지는 土地의 限界生産을 나타내며, 따라서 地代는 剩餘의 착취가 아니라 土地가 생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을 알 수 있다고 Clark는 주장하였다. (63)

비록 Clark가 전제한 完全競爭狀態를 받아 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의 주장으로부터 市場經濟體制가 낳은 階層間的 所得分配狀態가 정당하다는 결론에 치달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물론 사회적 정당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도 큰 문제이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Clark가 증명한 것은 어디까지나 각 客體로서의 生産要素에 귀속되는 所得의 사회적 정당성이지 主體로서의 각 개인에 귀속되는 所得의 사회적 정당성은 아니다. 地代가 土地라는 客體에 귀속되는 정당한 대가라고 해서 이 地代가 동시에 土地所得者에게도 정당한 대가라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所得分配問題와 관련된 보다 심각한 문제는 각 個人 혹은 각 階層에 귀착되는 所得의 정당성일 것이다.

### VI. 要約 및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 본 初期新古典學派의 地代에 관한 논의를 古典學派의 地代論과 대비시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63) 같은 책, pp.321-324. Clark의 이 주장은 von Thünen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그의 착취설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한 것이다.

첫째, 古典學派 地代論에 있어서는 土地는 非移動性 그리고 供給限定性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자원과는 구별되어야 할 특수한 資源이나 初期新古典學에 있어서는 土地는 경제적으로 이동 가능하며 또 供給이 한정되어 있지도 않은 資源으로서 다른 資源과 구별하여 특별 취급할 필요가 없는, 단지  $n$ 가지 生産要素 중의 하나로 취급된다.

둘째, 古典學派 理論에 있어서는 土地에 대한 대가인 地代는 총생산 중 다른 生産要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剩餘이며 剩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 때 다른 生産要素에 대한 대가는 無地代土地에서 결정된다. 初期新古典學에 있어서는 土地를 포함한 모든 生産要素에 대한 대가는 각각의 限界生産價値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구체적인 값은 각 生産要素의 限界生産價値가 균일화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土地地代는 剩餘가 아니라 土地의 限界生産價値이다.

셋째, 古典學派는 地代를 剩餘라고 보기 때문에 地代는 價格에 의해 결정되어진(price-determined) 所得이지 價格을 결정하는(price-determining) 費用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初期新古典學派는 어떤 時點에서 경제전체로서의 資源의 量을 일정하게 주어진다고 전제하며, 土地를 비롯한 모든 生産要素에 대한 대가가 限界生産價値가 균등해지는 상황에서 결정되므로 機會費用이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地代도 機會費用으로서 生産물의 價格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네째, 古典學派는 土地가 大自然의 無償供與物임을 중시하며 따라서 剩餘로서의 地代를 不勞所得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初期新古典學派는 地代뿐 아니라 모든 生産要素에 대한 대가는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는 대가이며 剩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심지어 市場體制下에서 결정되는 地代나 賃子에 대해서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물론 初期新古典學者라고 해서 모두가 위에서 요약한 것처럼 地代에 대해서 古典學派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Alfred Marshall은 地代에 대해 기본적으로 古典學派的이다. 그런 의미에서 Marshall은 상당히 예외적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地代에 관한 古典學派와 初期新古典學派 사이의 첨예한 견해차이는 土地觀 및 이와 결부된 문제의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마치 古典學派의 生産費價値說에 대한 반동으로 初期新古典學派가 主觀的 價値說을 극단으로 밀어 붙였던 것처럼, 土地觀 및 地代觀에 있어서도 初期新古典學派는 지나치게 限界生産理論에 집착하였다는 인상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Wicksteed의 *The Coordination of the Laws of Distribution*을 논평했던 A. W. Flux의 初期新古典學派 地代論에 대한 비판은 오늘날의 地代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는 “土地에 대한 대가가 土地의 限界生産임을

증명했다는 것이 土地에 대한 대가가 갖는 剩餘로서의 의미를 없애지는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土地를 비롯한 특정 生産要素의 경우에는 경제여건상 超過需要가 발생하여 이 生産要素의 價値—Flux의 용어로는 限界有用性(marginal usefulness)—가 매우 커지더라도, 이 超過需要를 없애기 위한 供給增加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供給增加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근본적 특징 때문에 土地에 대한 접근방법은 다른 生産要素에 대한 접근방법과 달라질 필요가 있고 따라서 地代를 剩餘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供給의 신축성 정도는 生産要素마다 다른데, 이럴 경우 보다 쉽게 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는 生産要素는 可變生産要素로, 그리고 명백히 공급을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生産要素는 固定生産要素로 취급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현실적이라는 것이 Flux의 견해이다. (64) 요컨대 Flux의 주장은, 短期에 있어서 어떤 生産要素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 生産要素에 귀속되는 所得은 이 生産要素의 공급이 충분히 신축성 있게 증가할 수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기대되는 어떤 正常水準을 현저하게 초과할 수가 있는데 이 超過분이 곧 經濟的 剩餘 혹은 地代라는 것이다.

흔히 經濟地代(economic rent) 혹은 Pareto 地代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오늘날의 地代의 개념을 정립한 학자로 알려진 Vilfredo Pareto의 地代에 대한 견해 역시 Flux의 地代에 대한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Pareto는 기본적으로 地代란 경제여건의 변화로 어떤 한 均衡狀態에서 다른 均衡狀態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저축이 어떤 특정 資本財로 순탄하게 전환되지 못한 결과(다시 말해, 이 특정 資本財의 공급이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이 특정 資本財에 귀속되는 所得이 다른 資本財를 포함한 경제전체 資本의 平均收益을 현저히 초과할 수가 있다. 이 때의 超過分을 그는 “획득된 地代(la rente acquise)”라고 하였다. (65) 土地는 다른 資本財와 달리 공간적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류의 土地에 대한 생산자 간의 경쟁은 결국 土地生産物을 통한 간접적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어떤 특정공간에 있어서의 土地供給量은 저축을 아무리 동원해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地代의 현상은 土地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66) 이 밖에 地代의 현상을 낳는 경제여건 혹은 경제여건의 변화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Pareto는 특히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나 특허조치를 꼽았다. 그러나 이 때에 발생하는 地代는 일시적이라고 보았다. (67)

(64) Keiper, et al., 앞의 책 p.90.

(65) Pareto, Vilfredo, *Manual of Political Economy*(translated by A.S. Schwier),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27, pp. 247-248.

(66) 같은 책, pp.321-322.

(67) 같은 책, pp.274-275, p.375.



이와 같이 限界生産理論의 틀 내에서도, 土地 혹은 土地 이외의 어떤 특정 生産要素의 경우 그 供給與件에 따라 生産物의 價格에 의해 결정된 剩餘로서의 地代가 존재함을 인정한 Flux와 Pareto의 地代에 대한 개념은 후에 Hubert D. Henderson, Joan Robinson, Kenneth Boulding 등에 의해서 수용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되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地代의 개념으로 발전되었다.<sup>(68)</sup>

地代는 土地 뿐 아니라 需要의 변화에 대응하여 供給이 신축성 있게 변할 수 없는 모든 生産要素에 결부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러한 종류의 生産要素에 귀속되는 所得은 生産費로 계산되는 機會費用의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따라서 生産물의 價格에 영향을 주지 않는 剩餘, 즉 地代로 구성된다.<sup>(69)</sup>

(68) Worcester, D.A. "A Reconsideration of the Theory of R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XXXVI, 1946(June) pp. 258-277.

(69) Cirillo, R. *The Economics of Vilfredo Pareto*, London: Frank Cass & Co. Ltd. 1979. pp. 120-121. Keiper, et al. 앞의 책 pp. 90-91.